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B조 본선 1라운드 체코와 한국의 경기. 2회말 무사 상황에서 한국 김하성이 솔로홈런을 친 뒤 흥인하며 박병호와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하성 홈런포 ‘왕’ 8강행 ‘실낱 희망’

WBC 세미프로팀 체코에 승
박세웅, 8탈삼진 무실점 호투
실점률 따져 요행수 기다려야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초반 연패를 당한 한국 야구가 ‘세미 프로팀’ 체코를 물리치고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2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체코와 3차전에서 선발 박세웅의 호투 속에 김하성이 솔로홈런 두 방을 치는 등 타선이 살아나 7-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초반 호주와 일본에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한 뒤 힘겹게 첫 승을 신고한 한국은 8강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꺼트리지는 않았다.

이날 저녁 경기에서 일본이 호주를 꺾고, 13일 낮 경기에서도 체코가 호주를 이긴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최종전에 승리하면 한국, 호주, 체코 세 나라가 2승 2패로 동률을 이룬다.

이 경우 3개국 사이에 승자승-최소 실점률-최소 자책점률-팀 타율-추점 순으로 8강 진출 팀을 가리게 된다.

체코전 승리의 주역은 선발투수 박세웅과 ‘메이저리거’ 김하성이었다.

지난 10일 일본전에서 마지막 투수로 등판해 콜드게임패의 수모를 막았던 박세웅은 이날 선발투수로 나서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140km대 후반의 빠른 공과 낙차 큰 커브, 슬라이더 등을 고루 섞은 박세웅은 삼진을 8개나 뽑는 위력적인 모습으로 체코 타선을 봉쇄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8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김하성은 이날 달아나는 솔로홈런 두 방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은 1회말 체코야구협회 홍보 업무를 겸하는 선발투수 루카시 에르콜리를 상대로 타자 일순하며 초반 기선을 제압했다.

선두타자 박건우가 우중간 2루타에 이어 실책으로 3루까지 갔고 1사 후 이정후가 적

시타를 날려 1-0으로 앞섰다.

이어 박병호와 강백호의 연속안타로 1점을 보낸 한국은 계속된 2사 만루에서 김현수가 밀어내기 볼넷을 고른 뒤 토미 현수에 드루먼이 유격수 강습 내야안타로 2점을 추가, 순식간에 5-0으로 앞섰다.

2회말에는 김하성이 드디어 장타를 터뜨렸다.

앞선 2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치던 김하성은 이날 첫 타석도 3루수 파울플라이로 물러났다.

그러나 두 번째 타석에서는 에르콜리의 시속 111km짜리 커브를 건어 올려 좌측 펜스를 훌쩍 넘겼다.

4회까지 퍼펙트 행진을 벌이던 박세웅은 5회초 선두타자 마르틴 체르벤카에게 좌익선상 2루타를 맞았다.

그러나 후속 2타자를 범타로 처리한 뒤 마운드를 내려갔고 구원 등판한 꺾빈이 삼진으로 이닝을 마쳤다.

체코 두 번째 투수 제프바르토의 느린 변화구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해 침묵하던 한국 타선은 6회말 1사 후 김현수가 내야안타로 출루했으나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체코는 7회초 에릭 소가드와 마레크 흘루프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의 찬스를 잡았다.

한국 벤치는 정철원을 구입 투입했으나 1사 후 마르틴 무지크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아 2-6으로 쫓겼다.

계속해 2사 3루가 되자 이강철 감독은 지난 9일 호주전 선발투수였던 고영표를 투입했고, 고영표는 후속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급한 불을 껐다.

추격을 허용한 한국은 7회말 선두타자 김하성이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쏘아 올려 다시 7-2로 달아났다.

그러나 한국은 8회말 2사 만루에서 등판한 이용찬의 폭투로 아쉽게 1실점한 뒤 이닝을 마쳤다.

1승 2패로 기록하며 13일 중국과 최종전을 겸한 한국은 호주-일본전, 호주-체코전 결과에 따라 ‘실점률’을 따져 기적처럼 8강에 오를 수 있는 요행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연합뉴스

광주FC, 전주성 공략 실패…전북에 0-2 패배

문선민에 멀티골 헌납

광주FC가 전주성 공략에 실패했다. 후반 중반까지 전북을 상대로 잘 싸웠으나 아쉽게 2연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0-2로 무릎을 꿇었다.

이전까지 전북전 통산전적 1승5무13패로 열세였던 광주는 공격축구로 전주성 함락을 노렸다. 개막전 수원전을 승리했고 FC서울전은 졌으나 경기 내용면에서는 뒤지지 않았던 광주는 전북을 상대로 시즌 2승에 도전했다.

지난 경기 퇴장으로 염지성이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광주는 허윤희와 이희균이 투톱으로 나섰다. 중원은 아사니, 박한민,

정호연, 정지훈이 나섰고 이민기, 안영규, 티모, 이상기가 포백을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시즌 첫승을 노리는 전북의 공격은 날카로웠다.

광주는 전반을 0-0으로 득점없이 마친 뒤 후반 공세를 높였으나 불과 2분만에 전북 문선민에 연속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광주는 전반 13분 이상기의 슈팅이 나왔으나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정호 감독은 빠르게 공격에 변화를 줬다. 스타팅으로 내보냈던 허윤희를 불러들이고 토마스를 투입하며 공세를 펼쳤다.

전반에만 2차례의 슈팅을 했으나 전북의 골문을 열지 못한 광주는 후반에 더욱 몰아쳤다. 하지만 후반 4분 토마스, 아사니의 패스가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3분 후에는

티모의 헤더가 무위에 그쳤다.

그러다 후반 28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문선민에 선제골을 허용했다. 광주는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곧바로 다시 문선민에 추가득점을 내주면서 무릎을 꿇었다.

광주는 후반에만 6차례의 슈팅을 날렸으나 끝내 전북의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4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한편, K리그2 전남 드래곤즈는 서울 이랜드를 잡고 2023시즌 개막 첫 승을 신고했다. 전남은 지난 11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3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6분 발디비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이랜드를 1-0으로 제압했다. /조혜원 기자

손흥민, 리그 6호 골 100골까지 1골 남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리그 6호 골로 팀의 기분 좋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 포리스트와 2022-2023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 후반 17분 썬기골을 책임지며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히사틀리송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노팅엄 수비수가 한 차례 건어냈지만, 히사틀리송은 다시 공을 잡아 크로스로 연결했고 손흥민이 이를 왼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웨스트햄전 이후 3경기 만에 리그 6호 골을 가동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각각 2골씩을 넣은 것을 포함하면 올 시즌 공식전에선 10골(3도움)을 작성해 2016-2017시즌부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더불어 손흥민의 이 골은 자신의 EPL 통산 99호 골이다.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 포리스트와 2022-2023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한 토트넘 손흥민이 후반 17분 썬기골을 터트린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현재 EPL 역대 득점 순위 34위에 자리한 손흥민은 리그에서 한 골을 더하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100골 고지를 밟게 된다.

이달 2부 세팍타 유니아티드에 쳐 FA컵 16강에서 탈락하고 AC밀란(이탈리아)에 밀려 UCL 8강 진출에 실패하는 등 최근 공식전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에 그쳤던 토트넘은 주포인 해리 케인의 멀티골과 손

흥민의 썬기 골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승점 3을 더한 토트넘은 리그 4위(승점 48·15승 3무 9패)를 지켰다. 두 경기를 덜 치른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49·15승 4무 6패)와 승점 차는 1이다.

노팅엄은 14위(승점 26·6승 8무 12패)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광양시청 가수형·김동현·백승민·김현미 태극마크

전남 후보·상비군 포함 9명

광양시청 가수형·김동현·백승민과 곡성군청 김현미가 2023년 태극마크를 달았다.

1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구미에서 열린 2023년 불링 국가대표 선발 결승전에서 국가대표 4명, 후보 2명, 상비군 3명 등 총 9명이 선발됐다.

남자 국가대표는 가수형·김동현·백승민, 상비군 최복음·백준원(이상 광양시청)이, 여자 국가대표는 김현미(곡성군청), 후보 이송원(고흥군청)·김문정(곡성군청), 상비군으로 이영송(전남일번)이 이름을 올렸다.

가수형은 남자부 1위를 차지하며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다.



가수형



김동현



백승민



김현미

지난해 대학무대와 국가대표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던 김동현은 7위를 기록해 2년 연속 발탁됐고, 백승민은 6위로 경기를 마감하며 광양시청에 입단한지 2년만에 첫 태극마크의 영광을 안았다. 뿐만아니라 청소년국가대표선발전 결승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승선했다.

여자부에서는 김현미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종남 전남불링협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태극마크라는 값진 결과를 맺었다”며 “전남불링의 위상을 높여 주길 기대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프로야구 시범경기 오늘 개막

KIA, 한화와 2연전으로 시작

2023년 한국프로야구 시범경기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 13일 개막한다.

한국야구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인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B조 경기에서 대표팀이 선전하고, 동시에 한국에서 시범경기 개막으로 봄을 일으키는 달콤한 상상을 했다.

그러나 WBC 한국 대표팀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호주에 7-8로 패했고, ‘라이벌 의식’을 드러낸 일본을 상대로는 4-13으로

완패당했다.

“WBC 성과가 KBO리그 인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많은 야구인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KBO리그의 시계는 돌아간다. 거듭된 국제대회 부진으로 ‘내수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내수시장마저 놓치면 KBO리그는 설 자리를 잃는다.

KBO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시범경기를 연다. 두산-롯데(사직), SSG-삼성(대

구), LG-NC(창원), kt-기움(고척), KIA-한화(대전) 경기를 시작으로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다.

시범경기는 4월 1일 개막하는 KBO 정규시즌을 앞두고 10개 구단이 전력을 최종 점검할 기회다.

자유계약선수(FA) 이적생들이 전 소속팀과 만나는 장면도 이번 시범경기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시범경기는 13일과 14일, 16일에는 오후 2시, 다른 날에는 13시에 시작한다.

아간 경기 적응을 위해 25일 한화-롯데(사직), NC-KIA(광주), 27일 KIA-롯데(사직), 한화-삼성(대구) 경기는 오후 6시에 열린다. /연합뉴스